

손흥민 보다 빠르다... 19세 정우영 UEFA 챔스 데뷔

獨 명문 '뮌헨' 10분간 1군 무대
탄탄한 기본기·스피드 두루 갖춰
7월초 2군 데뷔전서 멀티골 활약
뮌헨, 5-1 대승... 16강 진출 확정

독일프로축구 최고의 명문 바이에른 뮌헨의 기대주 정우영(19)이 '꿈의 무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마침내 1군 데뷔전을 치렀다.

정우영은 28일 독일 뮌헨의 푸스발 아레나에서 열린 2018-2019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E조 5차전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후반 36분 토마스 뮐러 대신 투입돼 그라운드를 밟았다.

지난해 6월 뮌헨에 입단한 정우영의 1군 무대 데뷔전이다.

한국 선수의 챔피언스리그 출전은 설기현, 송종국, 이천수, 박지성, 이영표, 박주호, 박주영, 손흥민에 이어 정우영이 9번째다.

1999년생으로 아직 만 20세가 되지 않은 정우영은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경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가장 어린 나이에 챔피언스리그에 데뷔한 한국 선수로 이름을 남겼다.

어릴 때부터 유럽 무대를 누비며 한국 축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는 손흥민도 챔피언스리그에는 만 21세인 2013년 데뷔했다.

왼쪽 측면 공격수로 주로 서는 그는 중학교 때까지는 중앙 미드필더로 활약했고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활용 가능한 자원이었다.

12세 이하(U-12) 팀부터 인천 유나이티드의 유스 팀에서 뛰며 탄탄한 기본기에 스피드와 기술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고, 2014년 난징 유스올림픽 등을 통해 연령별 대표로도 활약했다.

정우영은 인천 대건고 재학 중이던 지난해 4년 6개월 이적 계약을 맺고 바이에른 뮌헨 유니폼을 입었다. 1월 뮌헨 19세 이하(U-19) 팀에 합류해 데뷔전에서 골을 터뜨린 이후 발목 부상으로 공백기를 겪기도 했으나 7월 초 2군 데뷔전에서도 멀티골을 기록하는 등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달 말 독일축구협회(DFB) 포칼 2라운드(32강)를 앞두고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려 1군 데뷔 가능성을 부풀리던 그는 '꿈의 무대'로 여겨지는 챔피언스리그를 통해 뮌헨 선수로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이미 5-1로 승부가 기운 후반 막바지 출전해 정우영이 많은 것을 보여줄 시간은 없었지만, 향후 활약의 기대감을 높였다.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은 5-1 대승을 거둬 조별리그 4승 1무(승점 13)로 1위를 탈리며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다.

아리언 로빈이 전반 13분 선제골, 전반 30분 결승 골을 폭발했고, 로베르트 레만도프스키가 2골, 프랑크 리베리가 1골을 더했다. /연합뉴스



"나 기억해둬" 바이에른 뮌헨의 정우영이 28일 오전(한국시간)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아레나에서 열린 UEFA 챔피언스리그 E조 조별리그 뉘른베르크와 홈경기에서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인천·상주 '생존 혈투'

이번 주말 K리그1 최종전... 1부리그 잔류 위해 총력전

K리그 명가의 무너진 자존심을 지키려는 FC서울과 '생존왕' 인천 유나이티드, 그리고 2년 연속 승강 플레이오프에 내몰릴 수 없다고 버리는 상주 상무가 진땀 나는 '11위 피하기'에 나선다.

정규리그 9위 서울(승점 40)은 오는 12월 1일 11위 상주(승점 47)와 K리그1 38라운드 최종전을 펼친다. 같은 시간에 10위 인천(승점 39)은 이미 강등이 확정된 '꼴찌' 전남 드래곤즈(승점 32)와 마지막 대결을 펼친다.

K리그1에서 12위 '꼴찌팀'은 곧바로 K리그2로 강등되고, 11위 팀은 K리그2 플레이오프를 뚫고 올라온 팀과 승강 플레이오프(12월 6-9일)를 펼쳐 강등 여부를 결정한다.

공교롭게도 최종전에서는 1부리그 잔류를 확정하지 못한 팀들이 서로 맞붙게 된 점이 팬들의 관심을 끈다.

무엇보다 전방강호로 군림했던 서울은 이번 시즌 끝없는 추락 속에 '독수리' 최용수 감독 복귀 카드까지 급하게 꺼냈지만 강등 위기까지 몰렸다.

특히 지난 37라운드에서 인천에 0-1로 패한 게 뼈아팠다. 서울은 비기지만 해도 1부리그 잔류를 확정할 수 있었지만,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연합뉴스

9위 서울부터 11위 상주까지 승점 차가 3밖에 나지 않아 최종전 결과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온다.

서울이 상주에 잡히고 인천이 전남을 상대로 지지 않으면 서울은 11위로 떨어진다.

서울과 상주는 승점 3차이지만 다득점은 40골로 똑같다. 상주가 이겨서 서울과 똑같이 승점 40이 되면 다득점 우선 원칙에 따라 상주가 상위 순위로 올라간다.

인천이 전남과 비기고, 상주가 서울을 이기면 서울, 인천, 상주 3팀이 모두 승점 40이 된다. 이러면 다득점에서 밀리는 서울이 11위로 내려가게 된다. 최근 3연승 행진을 펼친 인천은 최종전 상대가 강등이 확정된 전남이라는 게 유리하다. 인천은 올해 전남과 두 차례 만나 2승1무로 앞섰다.

인천은 지난 시즌까지 4시즌 연속 2부리그 강등의 위기를 맞았지만, 시즌 막판 '불꽃 투혼'으로 1부리그에 남아 '생존왕'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상주는 지난해 정규리그 11위로 승강PO로 몰렸지만 부산 아이파크를 제압하고 올해 1부리그 잔류에 성공했던 '군인 정신'을 다시 한번 발휘하겠다는 각오다. /연합뉴스

'핫식스' 이정은 LPGA 진출 선언

순천출신 KLPGA 1인자... 5년 연속 한국인 신인왕 기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서 2년 동안 1인자로 군림한 이정은(22)이 내년부터 무대를 미국으로 옮긴다.

이정은은 28일 "고심 끝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진출을 결심했다"고 매니지먼트사 크라우닝을 통해 밝혔다.

이정은은 LPGA투어 Q시리즈 수석합격 이후 미래에 대한 목표 설정과 미국 진출에 따른 준비,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점을 들어 LPGA투어 진출 여부를 놓고 고민해왔다.

그러나 "내가 편하자고 안 가는 건 아닌 것 같다"면서 미국 진출에 더 무게를 뒀던 이정은은 최

근 경주에서 열린 챔피언스 트로피 박인비 인비테이셔널에서 LPGA투어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은은 다리가 불편해 휠체어에 의지하는 부친과 헤어져 지내야 한다는 사실에 미국 진출을 꺼렸다.

이정은은 곧 미국 진출에 필요한 현지 숙소와 캐디, 훈련 장소, 그리고 경기 출전 일정 등을 따져보는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정은은 "안정적 적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면서 "성적이나 타이틀 욕심보다는 매순간 최선을 다하겠다"는 출사표를 냈다.

이정은의 LPGA투어 데뷔는 동계훈련 성과를



밝가며 결정할 예정이다.

2016년 신인왕에 이어 지난해 상금왕, 다승왕, 대상, 최저타수상, 인기상 등을 석권한 이정은은 올해도 상금왕과 최저타수상을 받아 최고의 기량을 과시했다.

이정은의 가세로 LPGA투어 '코리아 자매 군단'은 더 힘이 붙게 됐다.

특히 5년 연속 한국인 신인왕 탄생 가능성이 부쩍 커졌다. /연합뉴스

타이거 우즈 '골프 선생님' 변신

디스커버리 골프TV 비디오 제작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팬들의 골프 선생님이 변신한다.

28일 로이터·AP 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내년 디스커버리 골프TV와 협약해 주간 골프 교육

비디오 제작에 참여한다.

골프TV는 디스커버리가 내년 1월 선보이는 실시간 및 주문형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다.

우즈는 이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인생과 골프, 훈련 습관, 마음가짐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우즈는 새롭고 젊은 골프 팬들을 끌어들이는 시도를 하게 돼 흥분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골프 지식을 나누는 것은 자신의 골프 경기를 사랑해준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나는 내 경기에 집중해왔다. 이 경험은 모든 곳에 있는 선수를 도울 것이다"라며 "다음 세대가 골프를 더 즐기고 더 잘하게 도울 수 있다면 아주 특별한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